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나눔수록 커지는 것 '자비심' 입니다



(사)우리는 선우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동참. 올 봄축기간에 자비의 등달기 운동을 펼친다. 사진은 자비의 등달기 운동에 참여한 불자들의 행진 모습.

“올해는 남을 위해 봉축등 컵시다”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등 달기' 운동...보시금 장애우 위해 사용
서울 장충단 공원에 5천등 목표...각종 문화행사도 펼쳐
붓다뉴스 '카드 서비스'로 온라인 동참기회 마련

우리는 선우,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동참 선언

올해도 서울 장충단 공원에 남을 위한 봉축등이 밝혀진다. '심신의 건강 및 쾌유를 비는 등' '모든 인연의 도움에 감사하는 등' '복된 삶을 기원하는 등' '가정, 국가, 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등' '학업, 직장, 사업 등의 성취를 기원하는 등' '사랑하는 이를 위한 등'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등'... 이렇게 이웃을 위한 10종류의 자비의 등이 매달린다.
(사)우리는 선우는 현대불교신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동참을 선언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28일까지 장충단공원에서 '자비

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친다. 5천 등을 목표로 하는 자비의 등 보시금은 소외받고 있는 이웃과 장애우 가을 나눔에 행사에 쓰여진다.
자비의 등달기 행사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일장충단공원에서 '문화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독도관련행사와 불교문화재 파손에 대한 사진전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대구지하철 참사자 추모 배지달기, 환경을 위한 사진전시회 및 컵 등 만들기, 기아, 소외아동 사진전시 및 컵 등 만들기, 영가를 위한 컵 등 만들기 등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자비의 등달기 행사는 나눔의 불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등을 달고 그 보시금으로 다시 한번 더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자는 것. 접수기간은 3월 2일~5월 26일까지이며, 등 보시금은 일반 1만원, 대학생 5천원, 중고생 3천원, 군인 2천원이다. 문의 (02) 2278-8672-3(담당: 박신영)
이와 함께 올해에는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buddhanews.com)를 통해 이웃들과 나눔의 마음을 전하는 카드서비스도 실시한다. 카드는 고마운 마음을 직접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등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함께하는 릴레이 실행 문화의 전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선우 상태용 대표는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불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며 "자비의 등은 장애인과 불자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청년불자 신영재 군



9년째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청년 불자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통해하고 있다.
1996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

9년째 백혈병 투병 중 재발로 치료·생계 막막

아 6차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은 신영재(19·사진) 군이 지난 99년 백혈병 1차 재발에 이어, 또 다시 병이 도져 투병 중에 있다.
현재 광주시 전남대병원에서 투병 중인 신군은 연이은 백혈병 재발로 가사가 망진된 상태다. 아버지 신동화(49) 씨는 아들의 잇따른 발병으로 얼마 되지 않는 전담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고, 삼촌의 빚보증으로 1억원의 부채마저 안고 있다. 게다가 아버지 신 씨마저 심한 당뇨병까지 앓고 있다. 때문에 5천여 만 원이 넘는 치료비와 수술비는 신 씨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능력 계좌번호 053-01-243778(예금주 생령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찬불가 부르며 영어 배우고 신심 기르세요”



찬불동요 테이프 전국에 보급 어린이집에서 청소년법회까지 활용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

"영어로 된 어린이 청소년 찬불가를 국내외에 보급하겠습니다"
현대불교와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가 테이프 보내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의왕 청계사 주지·사진). 이번 캠페인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전국 불교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법회 등에서 찬불가 테이프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스님은 "조기교육열풍, 세계화 헬빙화 시대에 맞는 밝고 명랑한 컨셉의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캠페인 진행과 관련해 3~4월경 영어 찬불가 발표회를 갖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지도자교육 과정에 찬불가 테이프가 교육용 자료로 어린이 청소년 캠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세계 각국에 영어 찬불가 테이프를 보급하여 한국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성행 스님은 "종단을 비롯 각 사찰과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부대중의 후원을 요청했다. 후원문의 (02)723-9836
김원우 기자

아름다운 이야기

온라인 마켓포털 업체 인온켓(www.onket.com)경매에 '서태지와 아이들(taiji-boys.com)'과 '이효리(leehyolee.co.kr)' 도메인(소유자 ID: adsl7077)이 자선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또 수익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전액 기부된다.
도메인 소유주인 신민영 씨(26)는 "위안부 할머니 전모양원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선경매로 전환했다"며 "이승연 영상누드집 파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도와줄까요

경제적인 지원합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빈곤층, 결식아동 및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진각복지119'를 운영하고 있다. 진각복지119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각복지재단이 정한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주어진다. (02)942-0144-5

나눔의 손잡기 동참

홍은3동 길상사 서대문구 홍은3동 길상사(주지 진환)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동참했다. 길상사는 나눔의 저금통 30개를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할 계획이다.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2조 손보명씨(광명시 소아동)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조원 택시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택시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100개와 희망가사들이 가져가 놓을 수 있는 저금통 10개를 신청했다."

합치회사 관음순 청주 수곡동 합치회사 관음순(대표 김해정)은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동참하며 스티커와 저금통 각 100개씩을 신청했다.

토지음식점 서울 광장동 토지음식점은 저금통 10개와 스티커 10개를 신청했다.

광주 김명자씨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김명자씨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매달 법우들과 후원금을 모아 현대불교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의 가게

서울 청진동 그린포토 사진관 (02-720-3437)
성내동 소중함이 치과 (02-3784-2828)
용인 기흥읍 부부 한의원 (031-282-8899)
의정부 호원동 회룡 한의원 (031-874-3332)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빈부격차와 실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137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천여명의 미아,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순이해를 맞아 원순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기로 하고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도와주세요

'복(福)' 짓는 기회를 드립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각종 축일 및 기념일을 맞아 시설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을 제공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칠순, 팔순, 생일 등 노인들의 소중한 날을 더욱 뜻 깊게 빛낼 후원자는 전화 또는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후원계좌 162-910001-93604(예금주 서울노인복지센터) (02)739-9501~3 후원개발팀

'우리들의 가족이 돼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증범)은 '승가원을 사랑하는 후원자'를 찾고 있다. 승가원의 가족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승가원 홈페이지(www.sgwon.or.kr) '후원자의 소리'에 신청하면 된다. 후원자에게는 승가원 및 소책자 등을 소식이 발송되고, 후원회비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02)928-0750

이렇게 참여하세요

①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륜 및 세무 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②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종가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또 봉사자가 필요한 복지단체의 경우 봉사자를 요청하면 보내드립니다.

③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받아갈 개인이나 가게는 연락주세요. 스티커도 함께 드립니다.

④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⑤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⑥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⑦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⑧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가능합니다.

⑨ 자비의 헌혈증 및 골수기증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골수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⑩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임야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